老年學의 槪念과 位相에 관한 硏究

韓 昌 榮*

目 次

Ⅰ. 緖 說
Ⅱ. 老年學의 擡頭와 發達
1. 老年學의 擡頭와 發達
2. 老年學의 世界的 動向
3. 韓國老年學의 擡頭
Ⅲ. 老年學의 內容과 構造
1. 老年學의 內容
2. 老年學의 構造
Ⅳ. 韓國老年學의 位相
1. 理論의 適用範圍上의 位相
2. 韓國老年學의 發達段階
3. 韓國老年學과 書誌學
Ⅴ. 結 語

Ⅰ. 緖 說

필자는 1969년에, "濟州市老人學序說"이란 글을 「濟州市」誌에 발표했던 적이 있었다.[1] 그래서 필자는 처음으로 "老人學"이라는 用語를 사용했던 것이다. 그 후 필자는 「濟州道老人論攷」라는 저서를 통하여, 1978년 5월에 이른바 "老年學"을 소개하였다.[2] 연이어 1978년 9월에는 金聖順의 論文, "老人學의 槪念과 發達"이 「老人生活」에 발표됐다.[3] 이와 같이 "老人學"이라는

* 法政大學 行政學科 敎授

1) 韓昌榮, "濟州市老人學序說", 「제주시」 제11호, 濟州市, 1969, pp. 81~88.
2) 韓昌榮, "濟州道老人論攷", 제주 : 韓一文化社, 1978년 5월, pp. 59~61.
3) 金聖順, "老人學의 槪念과 發達", 「老人生活」 제13집, 社團法人 大韓老人會, 1978년 9월(秋季號), pp. 51~54.

用語는 金東一 교수의 論文, "老人學이란 무엇인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4] 영어로 Gerontology라는 用語에 대해서 金교수는 이렇게 주장한다. Gerontology란 우리말의 老年學에 더 가까운 말이겠으나, 이 분야에서 오늘날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인간의 노령화에 그것과 관련있는 문제점들이므로 여기서 老人學이라 표현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Gerontology를 우리나라에서는 "老人學" 또는 "老年學"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1978년에 「韓國老年學會」가 創立되어 1980년에 同會의 學術誌인 「韓國老年學」 No. 1호가 創刊되고, 우리나라에서는 "老年學"이란 用語가 公式化되면서 定着되어진 것으로 보아진다.

필자 역시 韓國老年學會의 創立會員이거니와, 同會는 創立以後 꾸준히 成長·發展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 論文에서는 먼저 외국에서 발달한 老年學(gerontology)의 擡頭 乃至 足跡을 살펴보면서 그 발달내용과 최근의 動向을 알아보고 韓國老年學의 擡頭問題를 고찰하고 두번째로, 老年學의 內容과 構造에 관하여 천착하며 세번째로 韓國老年學의 位相에 관하여 살펴보고 끝으로, 韓國老年學의 現實的 課題라 할 수 있는 老年學과 書誌學과의 관계에 관하여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Ⅱ. 老年學의 擡頭와 發達

여기서는 먼저 老年學의 擡頭와 발달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老年學의 세계적 動向을 알아보며, 끝으로 韓國老年學의 擡頭問題를 고찰하기로 한다.

1. 老年學의 擡頭와 發達

「老年學」은 영어의 gerontology(불어로는 gérontologie; 독일어로는 Alternsforschung)에 對應하는 學問用語로써,[5]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 gerontology의 語原을 희랍어에서 찾을 수 있다. 老齡(old age)을 의미하는 'geros'라는 말과 무엇에 대한 연구나 서술을 의미하는 'loges'에서 'gerontology'라는 말이 생겨났다. 그러므로 gerontology는 노령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뜻이 된다. 다시 말해서 老年學은 "인간의 노화의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學問"이라고 할 수 있다.[6]

---

4) 金東一, "老人學이란 무엇인가", 「社會福祉」 通卷 82號, 韓國社會福祉協議會, 1984년 가을호, pp. 75~85.

5) 湯澤雍彦, 「老年學入門」, 東京 : 有斐閣, 1978, p. 1.

6) 張仁協·崔聖哉, 「老人福祉學」, 서울 : 서울大學校出版部, 1988, p. 33.

老年學研究의 始發은 長壽(longevity)에 대한 關心에서부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관심이 老化에 대한 경험적 연구로 이어지기까지에는 長久한 歲月이 지났으며 1930년대에 들어와서 老化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최초로 이루어졌다. 벨지움의 Quetelet는 인간의 신체의 특성(손의 힘, 몸무게 등)을 연령별로 조사하여 「인간의 본질과 그 능력의 발달」(On the Nature and the Development of His Faculties)이라는 책을 1835년에 발간하였는데 그는 최초의 老年學者로 인정되고 있다.[7]

"Aging"의 發見 즉 "aging"이 學術用語로 등장된 것은 老年學(gerontology)에 由來된 것으로, 이 老年學은 1944年에 提唱되어 이제야 겨우 그 研究方向이 理論的으로나 實踐的으로 確固해지고 있는데 그 發達過程을 살펴보면 다음 3段階로 나눌 수 있다.

① 第1期(1830~1920) 近代的 研究의 發端時期로 이것은 生物學과 醫學과의 限界가 明確해진 때부터 시작되어, L. Nasher에 의해 "geriatrics"(老年醫學, 老年病院)가 提唱되기에 이른 때까지,

② 第2期(1920~1940) 老年醫學이 提唱되어 組織的인 研究가 開始된 時期로 老年期(old age, senescence)에 관한 醫學的 考察이 겨우 組織的으로 이루어져 老年醫學의 概念이 漸次一般人에게 알려지게 된 時期,

③ 第3期(1945年 以後) 研究가 더욱 發展擴充되고 老年學이 탄생된 時期로 그 研究가 單純한 老年醫學 또는 老年病學으로서만 아니라 老年學으로서의 心理學, 社會學, 法律學, 經濟學 및 人口問題나 社會福祉에 관한 諸社會科學도 그 研究領域에 加擔하기에 이르러 드디어 old age 또는 senescence(老衰)의 研究에서 "aging"의 過程에 관한 研究에로 擴大 伸張하게 된 時期로 나눌 수 있는데, 이같은 歷史的인 發達過程에 따르면 結果的으로는 19世紀 後半으로부터 今世紀前般에 걸친 Senescence의 科學的 考察에서 今日의 "aging의 發展"이란 過程으로 發展해 온 것이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過程을 거쳐 提唱하기에 이른 老年學(gerontology)은 "늙음의 病理"가 아닌 "老化의 過程"을 研究하는 新學問으로 등장한 것이다.[8] 따라서 老年學은 綜合科學의 性格을 띠고 있다.[9]

이와 같은 老年學이 發展하여 감에 따라 分化되어 갈 것이다. 하여간 現在로서는 gerontology라는 概念으로 老人問題에 관한 諸分野를 包括的으로 包攝하고 있는 段階이다.

---

7) 張仁協·崔聖哉, 前揭書, pp. 34~35.

8) 金相圭, 「老人福祉의 體系的 研究」, 大邱 : 慶北大學校出版部, 1976, pp. 135~136.

9) 玄斗日, "韓國老人의 生活構造에 관한 社會學的 研究", 「建大學術誌」 第20輯, 建國大學校, 1976, p. 464.

그런데 이미 E. Stieglitz, N. Shock 및 C. Tibbitts는 gerontology가 包括하는 領域 또는 問題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열거하고 있다.[10]

(E. Stieglitz)

(1) The biology of senescence(老年期의 生物學)

(2) Geriatrics(老年醫學)

(3) The sociologic, economic, and cultural problems of aging people(老人의 社會, 文化的 諸問題)

(N. Shok)

(1)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precipitated by an increasing number of elderly people in the population(高齡人口의 增加에 수반되여 促進되는 社會, 經濟的 諸問題)

(2) Psychological aspects of aging within individuals, and their reactions to one another(個人 및 個人 相互間의 關係에 있어서 老化의 心理學的 側面)

(3) Psychological basis of aging, along with pathological deviations and disease processes(老化의 生理學的 基礎와 그 病理學的 側面)

(4) General biological aspects of aging in all animal species(動物界 全般에 있어서 老化의 一般生物學的 側面)

(C. Tibbitts)

(1) Biological aspects of aging(老化의 生物學的 側面)

(2) Psychological aspects of aging(老化의 心理學的 側面)

(3) Sociogical or situational changes with age(老化의 社會學的 側面 또는 老化에 따른 社會的 地位의 變化)

(4) Sociopsychological or behavioral aspects of aging(老化의 社會心理學的 乃至 行動的 側面)

그리고 Journal of Gerontology에서는 同雜誌에 실려있는 內容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Section A : Biological and Medical Sciences

Section B : Behaviorial and Social Sciences

Section C : Social Gerontology

위와 같이, 老年學은 第1期, 第2期, 第3期를 경과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특히 老年國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 볼 수 있다.

---

10) 橘覺勝, 「老年學」, 東京 : 誠信書房, 1976, pp. 29~30.

2. 老年學의 世界的 動向

앞서 말한 바와 같이, 老年學은 老年國에서 발달했다고 볼 수 있거니와, 일찌기 國際聯合은 人口의 老齡構造上으로 봐서 青年國, 成年國 그리고 老年國으로 나라를 三分했다. 즉 한 나라의 人口 가운데 65歲 以上의 比率이 4% 未滿의 나라를 青年國이라 하고, 4% 以上 7% 未滿의 나라를 成年國이라하고 7% 以上의 나라를 老年國이라 하기로 했다.[11] 한편 일반적으로 8% 以上의 나라를 高齡社會로 보는 견해도 있다.[12] 또한 高齡社會에서도 加齡이 進行되는 경우를 특히 高齡化社會라고도 한다. 이런 脈絡에서 老年國 또는 高齡社會 乃至 高齡化社會를 알아보면, 〈表 1〉과 같다.[13]

〈表 1〉 特定國의 3年次에 걸친 人口加齡指數와 扶養係數

	1981年		2000年		2025年	
	加齡指數	扶養係數	加齡指數	扶養係數	加齡指數	扶養係數
日 本	9.3	13.9	16.2	24.4	23.8	38.5
美合衆國	11.4	17.3	11.7	17.6	17.2	27.5
이 태 리	13.5	20.8	16.2	24.6	19.6	31.0
英 國	15.3	23.7	14.9	22.6	18.3	28.9
화 란	11.6	17.4	14.1	20.3	22.7	36.7
스 웨 덴	16.5	25.6	17.2	25.6	22.3	35.9
西 獨	15.3	22.8	16.5	24.4	22.1	35.9
佛	13.5	20.9	14.8	22.4	19.4	31.0

註 : 1) 日本은 日本大學人口推計(1982年 6월), 其他國은 國聯推計(1982年).

2) 佛 1981年値는 1982年.

3) 加齡指數 $= \frac{65歲\ 以上\ 人口}{總\ 人\ 口} \times 100$

4) 扶養係數(老年者扶養係數) $= \frac{65歲\ 以上\ 人口}{15\sim64歲\ 人口} \times 100$

〈表 1〉에 의하면, 세계에서 加齡指數가 제일 높은 나라는 스웨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14] 그

11) 韓昌榮, "韓國老人福祉의 行政과 法制에 관한 硏究",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79, pp. 34~35.

12) 李允淑, "日本老年學의 發展過程과 硏究動向", 「韓國老年學」 No. 8, 韓國老年學會, 1988, p. 227.

13) 上揭論文, p. 228.

14) 平田富太郎, 「スウエーデンの 老人と 福祉」, 東京 : 成文堂, 1976, 참조; 湯澤雍彦", 「世界の 老人の 生き方」, 東京 : 有斐閣, 1980, pp. 71~94, 참조.

다음이 영국[15] 과 西獨[16]으로 나타나고 세번째가 이태리[17] 와 불란서[18]로 나타나고 있다. 美國과 日本은 앞서 말한 나라들보다 加齡指數가 낮은 편이지만, 2000年에 가서는 日本이 美國보다도 加齡指數가 높을 것으로 推計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먼저, 여러나라 중, 미국과 일본에 있어서의 老年學研究動向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國際老年學會(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rontology)의 動向에 관하여 살펴보며 아울러 UN과 老人에 관하여 一瞥하기로 한다.

가. 美國에 있어서의 老年學研究動向

필자는 객원교수(1984~1985)로 미국의 老年學을 연구한 적이 있었거니와, 그 결과로 "韓·美老人文化와 福祉行政에 관한 研究"라는 論文[19] 1편과 「美國老年學」과 자매편이랄 수 있는 「留美漫筆」이라는 두권의 책을 出刊한 바 있다.[20] 필자는 미국에서 論文과 책을 집필하면서 우선 미국 老年學에 관한 자료의 豊富性과 體系性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後述하겠지만, 미국老年學上, 이른바 註釋附書誌學(annotated bibliography)이 발달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동일교수와 서혜경교수가 미국老年學의 研究動向에 관한 탁월한 研究가 있다. 즉, 그것은 "美國老人問題研究動向"이라는 論文인 것이다.[21] 同論文에서는 1975년부터 1987년간 "Journal of Gerontology"에 실린 1,285편의 論文을 分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분석결과를 간추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1,285편의 論文을 큰 分野別로 나누어 고찰한 것은 〈표 2 〉와 같다.[22]

---

15) 朴在侃, "老人問題의 國際的 動向", 「社會福祉」 通卷 70號, 韓國社會福祉協議會, 1981, 겨울호, pp. 65~66, 참조; 李鉉雨, "老人扶養에 關한 世代間의 意識差 研究－韓國과 英國大學生을 中心으로－", 「論文集」 제34집, 釜山水大, 1985, pp. 95~112, 참조; 崔聖哉, "英國과 美國의 老人福祉傳達體系", 「韓國老年學」 No. 8, 韓國老年學會, 1988, pp. 167~170, 참조.

16) Hans Peter Bleuel, 「Alte Menschen in Deutschland」, München :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1972, 참조.

17) 朴在侃, 前揭論文, p. 66.

18) Léon Binet, 「GÉRONTOLOGIE ET GERIATRIE」, Paris :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1, 참조.

19) 韓昌榮, "韓·美老人文化와 福祉行政에 관한 研究", 「論文集」 第21輯(인문·사회학과편), 濟州大學校, 1985, pp. 219~242.

20) 韓昌榮, 「美國老年學」, 제주 : 新亞文化社, 1990 및 韓昌榮, 「留美漫筆」, 제주 : 新亞文化社, 1990, 참조.

21) 김동일, 서혜경, "美國老人問題研究動向", 「韓國老年學」 No. 8, 韓國老年學會, 1988, pp. 208~217.

22) 上揭論文, p. 210에서 再引用.

〈表 2〉 Number and Percentage Comparison of. Section Categories of Published Reseach Between 1975~1980 and 1981~1987.

Section Categories	1975~1980	1981~1987	Total
Biological Medical Sciences	234(43.66)	306(40.85)	540(40.02)
Psychological Sciences	176(32.84)	277(36.98)	453(35.25)
Social Sciences	126(23.51)	166(22.16)	292(22.72)
Total	536(100%)	749(100%)	1285

위 〈表 2〉에 대해서, 김동일교수와 서혜경교수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 즉, 노년학 논문들을 전공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전기(1975~1980년 사이), 후기(1981~1987년 사이) 모두 생물학적 및 의학적 논문이 가장 많이 발표되고 심리학, 사회과학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분야별 게재논문의 증감추세를 보면, 심리학쪽 논문의 비중이 다소 커진반면, 생물, 의학적 논문과 사회과학 분야의 논문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약간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分析한 김·서교수는 老年心理學分野에 관한 論文分析을 상세히 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줄이고 사회과학 분야에 대한 김·서교수의 분석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회과학분야의 내용분석은 〈表 3〉과 같다.[23]

〈表 3〉에 의하면, 생활만족도와 사기의 문제가 제일 많이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다음이 健康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세번째가 일과 은퇴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아무튼, 老年期의 건강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바, 따라고 보면, 생활만족도와 사기의 문제나 일과 은퇴문제도 역시 건강문제와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매락에서 건강문제를 社會化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이런 관점에서 研究되어진 論文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24]

---

23) 上揭論文, p.215에서 再引用.

24) 洪在郁, "東洋思想에 있어서의 健康(衛生)觀考, 「論文集」, 第7輯, 淸州教育大學, 1971; 洪在郁, "主要 宣言 및 憲章의 健康에 關한 條文攷", 「論文集」, 第12輯, 淸州教育大學, 1976; 洪在郁, "主要國 憲法의 健康에 關한 條文攷", 「論文集」, 第13輯, 淸州教育大學, 1977. 참조.

〈表 3〉 Number and Percentage Comparison of Social Studies Among Published Research Between 1975~1980 and 1981~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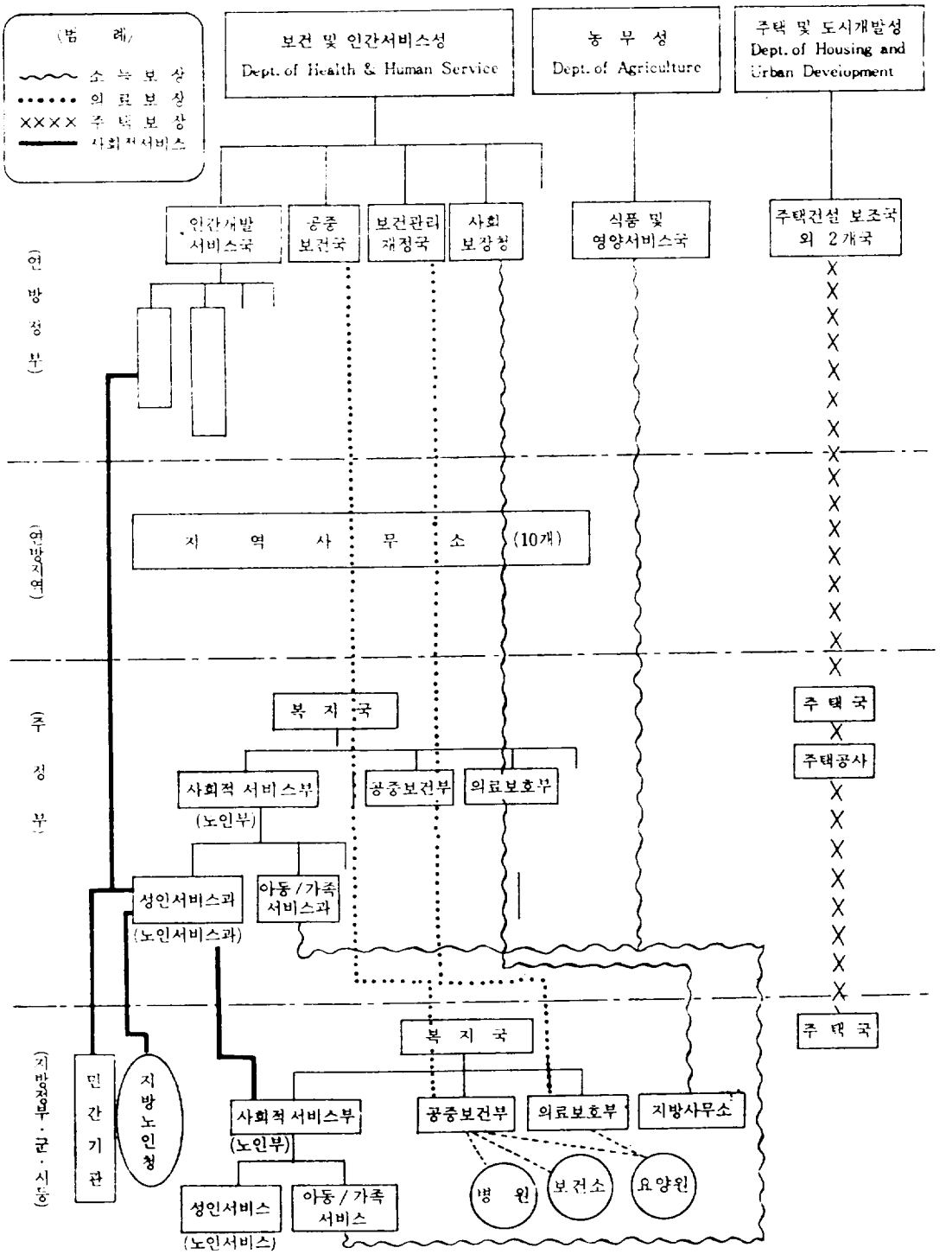
Content Categories	1975~1980	1981~1987	Total
Status & role Charges	6(4.76)	5(3.01)	11(3.77)
Demography	6(4.76)	9(5.42)	15(5.14)
Primary relationship	2(1.59)	24(14.46)	26(8.90)
Housing & living environment	21(16.67)	12(7.23)	33(11.30)
Work & retirement	18(14.29)	22(13.25)	40(13.70)
Services & Public Policy	4(3.18)	1(0.60)	5(1.71)
Social interaction	14(11.11)	17(10.24)	31(10.62)
Life Social & Psychological Variables Morale	19(15.08)	27(16.27)	46(15.75)
Widowhood death & dying Bereavement	6(4.76)	6(3.61)	12(4.11)
Economics of the aged	3(2.38)	7(4.22)	10(3.42)
Spectrum of aging	7(5.56)	2(1.20)	9(3.08)
Health	15(11.90)	30(18.07)	45(15.41)
Reviewing	5(3.97)	4(2.41)	9(3.08)
Total	126	166	292

끝으로, 미국의 老人福祉서비스 傳達體系를, 崔聖載교수가 一目瞭然하게 圖式化시키고 있거니와, 美國老年學研究에 도움이 될 것으로 思料되어, 여기에 崔교수의 圖式을 소개한다.[25]

아무튼, 2차대전이 끝난후 전반적인 의학연구의 활성화와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老年學研究는 50~60년대를 거치면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미국에서는 여러 곳에 연구소가 설립되었는바, 1946년에 미국「국립보건소연구소」에서 하나의 연구팀으로 시작한 노년학 연구는 1974년「국립노년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on Aging)로 독립되었다. 1945년에 창립된「미국노년학회」(The 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는 주로 학술적 연구활동과 응용활동의 두가지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26]

25) 崔聖載, 前揭論文, p. 174.
26) 윤 진.「성인·노인심리학」,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1985, pp. 16~17.

〈表 4〉 미국의 전형적 노인복지 공공전달 체계



이외에도 老年學研究를 위한 여러 學會 또는 研究所가 있으며 미국의 여러 大學에서도 老年學을 研究하고 있는 것이다.[27] 따라서 90년대에는 미국에서 老年學研究의 눈부신 발전이 예견된다.

나. 日本에 있어서의 老年學研究動向

日本에 있어서의 老年學研究動向에 관하여서는, 李允淑박사의 섬세한 論文, "日本老年學의 發展過程과 研究動向"에 잘 나타나고 있다.[28] 同論文의 要點을 간추려 土臺로 하면서, 日本에 있어서의 老年學研究動向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老年學研究는, 高齡者를 科學研究의 對象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 거의 없었다고 본다.[29] 그러나 明治·大正期에 專門書로서 稻積陳奎의「隱居論」, 入澤達吉의「老年病學」, 그리고 松本亦太郎의「知能心理學」이 있었을 뿐이다. 한편 東京의 養老院의 하나인「浴風園」에서 福原誠三郎·尼子富士郎·橘覺勝 등이 처음으로 組織的·繼續的인 醫學的·社會的·心理的인 세方向으로 老人研究를 開始하여 그 결과를「浴風園調査研究紀要」라 하여 1930年부터 1039년까지 續刊했다고 한다.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55년 전후해서 學界 특히 醫學界는 歐美의 geriatrics 및 gerontology의 영향을 받아서, 醫學을 中心으로 한 老人研究가 開始되었다.

日本에서 老人問題에 관한 最初의 組織은, 1954년 渡邊定의 提唱에 의해서, 鹽田廣重을 會長으로 해서 結成되어진「壽命學研究會」라고 한다.

그후 1958년에는 각각 獨立된「日本老年醫學會」(Japan Geriatric Society)와「日本老年社會科學會」(Japan Socio-gerontological Society)라는 2개의 學會와 그 聯合體로서의「日本老年學會」(Japan Gerontological Society)라고 하는 3種의 학회가 한꺼번에 조직되었다. 연이어 1974년에는 東京都에 처음으로「老人綜合研究所」가 설치되어 많은 project研究가 개시되었으며, 1975년에는 기관지「社會老年學」이 創刊되었다.

日本老年學界에 大書特筆되어진 것은, 1978년 8월에 국제노년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rontology)가 주최하는 제11회 국제노년학회의 (11th International Congress of Gerontology)가 日本에서 개최되었다는 점이다.[30]

그리고 李允淑박사의 同論文에 소개되어진 日本老年學關係 參考文獻을 一瞥하면, 日本에서 老人問題에 관한 많은 서적 또는 보고서 및 論文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27) 韓昌榮, "美國의 老人과 教育",「論文集」第23輯(인문·사회편), 濟州大學校, 1986, pp. 262~266.
28) 李允淑, "日本老年學의 發展過程과 研究動向",「韓國老年學」No. 8, 韓國老年學會, 1988. p. 222~234.
29) 湯澤維彦, 前揭書, p. 5.
30) 鄭周永,「老人福祉便覽」, 서울 : 峨山社會福祉事業財團, 1985, p. 123.

끝으로, 필자는 日本老年學界의 課題로서 두가지를 지적해 두고자 한다. 하나는 지금까지 구축한 個別的 老年諸科學의 深化라고 하는 微視的 接近方法(microscopic approach)과 아울러 總合된 社會老年學의 統一이라고 하는 巨視的 接近方法(macroscopic approach)의 志向이라는 점이다.[31] 다른 하나는 高齡化社會에 對應하는 老年硏究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李允淑박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32]

불확실의 時代라고 하는 現代社會現象에서 人口老齡化는 가장 확실성이 높은 現象이며 今世紀中 日本은 유럽의 老化단계와는 달리 Aged society(高齡社會)의 狀態에 머무르지만 21世紀에 들어가면 유럽水準의 老齡化率(14%)에 달하고 지금껏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볼 수 없었던 20% 水準의 Aging socity(高齡化社會)가 된다.

이와 같은 긴박한 현실을 잘 알고 있는 日本의 老年學界가 그 대응책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에 대해 1975年부터 「高齡化社會에의 對應」이라는 主題下에 數없는 심포지움과 발표 토론회의를 가져왔다.

다. 國際老年學會(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rontology)

필자가 알기로는, 國際老年學會를 本格的으로 우리나라에 소개한 사람은 李允淑박사이다. 李박사는 "老年學의 歷史的 背景과 現實的 課題"라는 論文을 통해서 國際老年學會의 흐름을 소개하고 있다.[33]

國際老年學會는 老年에 關한 諸問題를 生物學, 基礎醫學, 臨床醫學, 社會科學, 心理學 및 社會福祉 等의 面에서 硏究하고 그 成果의 國際交流를 試圖하는 學會이다. 會議의 母體機關인 國際老年學會(IAG)는 1950年 第1回 會議를 Belgium Liege에서 가졌으며 以後 3年마다 會議를 가지고 1978年 第11回 會議가 亞細亞에서는 처음으로 日本, 東京에서 開催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同會議에 李允淑박사를 포함한 7名의 代表가 參加하였다.

이 會議는 加齡(Aging)과 老化의 機序를 解明하는 基礎醫學者, 成人病, 老年病의 豫防과 治療 健康의 維持增進을 使命으로 하는 臨床醫學, 社會醫學, 保健學者, 心理的 諸問題를 專門으로 하는 社會科學心理學者 및 實際로 老人을 看護하고 福祉事業에 從事하는 많은 사람들이 全世界로부터 參加하여 硏究의 發表와 意見의 交換을 한다. 그 特徵은 各己의 領域에서 獨創的 硏究 成果를 發表함과 同時에 專門分野가 다른 많은 分野의 諸學者가 서로 意見을

---

31) 湯澤維彦, 前揭書, pp. 9~10; 森幹郎, 「政策老年學」, 東京 : 垣內出版, 1981, pp. 6~7.

32) 李允淑, 前揭論文, p. 230.

33) 李允淑, "老年學의 歷史的 背景과 現實的 課題", 同德女子大學 附設 老人保健福祉硏究所, 創立세미나, 「老年學의 展望」, 同德女子大學 예술관, 1979. 11. 27, pp. 30~32.

交換하고 討論함으로써 老化와 老人問題에 關한 應用綜合科學으로서의 學術的 硏究를 도모하는 것이다. 日本老年學會는 國際老年學會에 加入하고 第5回 會議 때부터 代表가 參席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第11回 會議 以後 老年學에 關心이 있는 關係專門家들이 모여 1978年 12月에는 「韓國老年學會」를 創立하였다.

다음은 國際老年學會의 흐름을 理解하기 위한 基礎資料로서 과거에 개최되었던 國際老年學會議(International Congress of Gerontology)의 狀況을 소개하면, 〈表 5〉와 같다.[34]

〈表 5〉 국제노년학회의 (International Congress of Gerontology)

개최연월		장 소	회 장	참가국 및 인원, 주제, 기타
1950. 7	창립 총회	Belgium Liege	L. Brull	출석자 95명, 발표수 50, 생물학·임상의학이 대부분, 사회과학은 3편
1951. 9	2회	America St. Louis	E. V. Cowary	주제 : 'What is Aging'사회과학(심리학 포함)부회 설치를 요청, 그러나 학회 사무국에 대표적 인물이 없어 설치 목함.
1954. 7	3회	British London	J. H. Sheldon	노인의 건강 사회과학위원회 설립(1955~1956)
1957. 7	4회	Italy Merano	E. Greppi	특히 사회과학부회에 대한 흥미가 높았음. 제4회 부회로서 Division of Social Welfare의 설치.
1960. 8	5회	America San Francisco	L. Kuplan	33개국 500명 참가, 일본 15명, 발표자 300명.
1963. 8	6회	Danish Copenhagen	T. Geiel	36개국 900명 참가, 일본 30명, 발표자 490명, 심리사회과학 164편.
1966. 6	7회	Australia Wien	W. Doherauer	'Age with a future'42개국 1,500명, 발표자 1,000명, 심리사회과학 240편, 정신의학 60편.
1969. 8	8회	America Washington, D. C.	N. Shock	
1972.	9회	U. S. S. R. 기여후		45개국 3,000명 참가.

34) 上揭論文, pp. 31~32.

개최연월		장 소	회 장	참가국 및 인원, 주제, 기타
1975. 6	10회	Israel엘사렘		30개국 2,000명 symposium 54, 생물학 10, 임상사회학 15, 사회행동과학 9, 응용연구·사회복지 3, 학술연구 17, 전문부회 80(생물학 15, 일상사회의학 29, 사회행동과학 18, 응용연구·사회복지 18)
1978. 8	11회	Japan Tokyo	村上元孝	46개국 2,000명 참가, 한국대표 7명, symposium 의제 56, 그중 생물학 8, 임상의학 13, 행동과학 및 사회과학 8, 사회노년학 7, 생물학 및 의학 9, 의학 및 사회노년학 8, 물학의학 및 사회노년생학 3.
1981. 6	12회	West Germany Hamburg	H. K. Thoma	80개국, 한국 대표 5명 참가,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년학적 연구. ※ 이 회의에 대해서는, 尹振교수의 "제12차 국재노년학대회를 보고" (「月刊朝鮮」 1981년 12월호, pp. 190~193) 참조.
1985. 7	13회	America New York	Ewald W. Busse	주제 : "Aging : The Umiversal Human Experience. ※ 韓昌榮, 「留美漫筆」(제주 : 新亞文化社, 1990)에 參加記가 있음.
1989. 6	14회	Mexico Acapulco	S. Bravo Williams	주제 : "The Old In A New World ※ 金惠順 교수가 이 회의에서 발표하였음(「韓國老年學」 No. 8, pp. 44~63, 참조).
1993. 7 (예정)	15회	Hungary Budapest	Edit Beregi	주제 : Science For Healthy Aging

라. UN과 老人

UN은 1978년 12월 14일, UN총회결의 52-33항에 따라 「老人에 관한 世界總會」를 개최하는 일에 뜻을 모았던 것이다.[35] 그리하여 1982년은 「世界老人의 해」로 정해졌고 Vienna에서 「世界總會」(1982년 7월 26일~8월 6일까지)가 개최됐다. 이 총회는 문자 그대로 高齡者問題世界總會이었는데 124개국이 참가했다. 이 世界總會는 世界人權宣言의 테두리안에서 高齡者問題의 基本原則을 정하고 UN의 基本的 國際戰略을 작성하여 각 나라에 대해서 권고를 한다는 것이었다.[36] 그리하여 「世界總會」는 다음과 같이 행동 프로그램(action program)의 目標를 설정했다.[37]

- To further national and international understanding of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implications for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aging of the populations;
- To promote national and international understanding of the humanitarian and developmental issues related to aging;
- To propose and stimulate action-oriented policies and programs aimed at guaranteeing social and economic security for the elderly, as well as providing oppportunities for them to contribute to, and share in the benefits of, development;
- To present policy alternatives and options consistent with national values and goals and with internationally recognized principles with regard to the aging of the population and the needs of the elderly; and
-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appropriate education, training and research to respond to the aging of the world's population and to the foster an interational exchange of skills and knowledge in this area.

이렇게 해서, UN은 「世界總會」를 통해서, 高齡者問題를 문자 그대로 世界的인 關心之事로 浮刻시켰던 것이다.

3. 韓國老年學의 擡頭

우리나라의 老年學의 擡頭問題를 천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老年學과 관련되어진 研究의 進陟狀況을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

35) 韓昌榮. 「敬老思想과 老人福祉」, 제주 : 韓一文化社, 1983, p. 135.
36) 那須宗一 監修, 「老年學事典」, 京都 : ミネルヴア書房, 1989, p. 3.
37) The National Council on the Aging, 「Aging Im All Nations」, A Special Report On The United Nations World Assembly on Aging, Vienna, Austria, July 26-August 6, 1982, p. 1-2.

具滋順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사회노년학에 관련된 최초의 碩士學位論文은 1962年 성균관대, 이경식의 "孝의 硏究"이다.[38] 그리고 최초의 博士學位論文은 1972年, 고려대학교, 이원용의 "한국인 가정노인과 시설노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비교연구"라고 한다.[39] 또한 최초의 일반논문은 1966年 권이혁의 "노인증가와 사회적 문제"라고 한다.[40] 이와 같이 연구결과는 그 후 계속 발표되어지기 시작하였거니와, 그 硏究論文現況을, 具滋順교수는 다음 〈表 6〉과 같이 분석·정리하고 있다.[41]

〈表 6〉 한국사회노년학 연구논문현황 1960~1988

(숫자)

분류 / 년도	석사학위논문	박사학위논문	일반연구논문	단 행 본	합 계
1960~1964	1	·	·	·	1
1965~1969	2	·	3	·	5
1970~1974	7	1	13	·	21
1975~1979	30	1	62	7	100
1980~1984	72	5	136	11	224
1985~1987	42	6	54	7	109
합 계	154	13	268	25	460

다음으로, 老年學에 관한 단체를 살표보기로 한다.[42]

△ 韓國老人病學會(1968년 설립)

△ 韓國老人問題硏究所(1975)

△ 韓國社會事業大學(現 大邱大學校 전신)附設 老人福祉硏究所(1978)

△ 韓國成人病學會(1978)

△ 韓國老年學會(1978)

△ 同德女子大學 附設 老人保健福祉硏究所(1979)

요컨대, 施間의 硏究狀況과 硏究團體의 設立 등을 綜合的으로 고찰하여 볼 때, 韓國老年學의 胎動은 60年代 초반부터 있어 왔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 胎動은 극히 미미했으며, 70年代로

38) 具滋順, "韓國老人問題硏究의 現況과 展望", 「韓國老年學」 No. 8, 1988, p. 192.
39) 上揭論文, p. 192.
40) 上揭論文, p. 192.
41) 上揭論文, p. 192.
42) 張仁協·崔聖哉, 前揭書, p. 36.

접어들면서 그 胎動의 모습은 顯在化되었다고 볼 수 있고, 老年學이 撞頭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老年學의 撞頭에 劃期的인 分水嶺이 된 것은, 두말할 것없이, 韓國老年學會의 創設(1978년 12월 16일)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 韓國老年學會의 創設年을 韓國老年學 元年이라고 提唱하고자 한다. 즉 韓國老年學 元年은 1978年이 되는 셈이다.

Ⅲ. 老年學의 內容과 構造

여기서는, 老年學을 그 內容과 構造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하는 바, 그 內容面에서는, 老年學이 다루고 있는 諸分野를 다루어보는 한편, 老年學의 범위문제 등을 살펴보며, 그 構造面에서는, 老年學을 投影하는 諸觀點에 따라서 그 構造를 천착하기로 한다.

1. 老年學의 內容

주지하는 바와 같이 老年學(gerontology)은 綜合科學的 學問(interdisciplinary science)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히 適應科學(applied science)들은 老年學과 밀접불가분의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老年學에 있어서는 다뤄져야 할 課題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런 課題 또는 그 學問的인 包括領域을 金相圭교수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43]

1) 老化(aging)의 生物學的·醫學的인 諸問題인데 이것을 보다 具體的으로 말한다면

① 老化의 本質
② 壽命의 問題
③ 營養의 問題
④ 精神身體醫學에 關聯하여 身體機能回復(rehabilitation)의 問題

2) 老化의 精神的·心理的인 諸問題인데 이것을 보다 具體的으로 말한다면

① 老化의 心理學的 本質
② 老化의 生活適應의 問題
③ 老化의 座와 生活行動의 問題
④ 老齡者의 社會的 適應問題
⑤ 老齡者의 家庭生活과 適應問題
⑥ 老齡者의 性品과 그 調査·研究問題

43) 金相圭, "老年學小考", 「社會福祉研究」, Vol. 9, 大邱大學校 社會福祉研究所, 1081, p. 57.

3) 老化의 社會科學的인 諸問題인데 이것을 보다 具體的으로 말하면

① 老齡人口의 問題

② 老齡者의 行動과 性品에 關한 問題

③ 老化와 環境과의 問題

④ 老化와 社會組織의 問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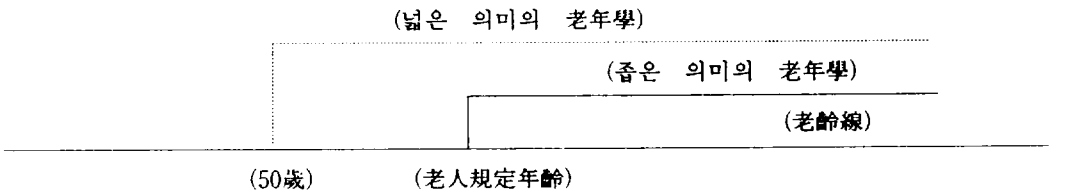
⑤ 老化와 經濟의 問題

⑥ 老化와 政策의 問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老年學중에는 숱한 課題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老年學의 범위문제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그 범위문제를 年齡이라는 視覺에서 천착하기로 한다. 대저, 老年學이라면, 老人을 對象으로 하는 學問이라고 말할 수 있는바, 老人의 年齡規定에 따라서, 老年學의 범위가 정해질 것이다. 이런 時點에서라면, 老年學의 범위는 制限性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老人을 대상으로 하는 老年學을 좁은 의미의 老年學이라고 본다. 여기에 넓은 의미의 老年學을 想定할 수 있게 된다. 좁은 의미의 老年學으로서는 老人問題를 本格的, 事前的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면, 退職(retirenent)문제에 있어서, 退職後(post-retirement)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退職前(pre-retirement)의 문제가 善處되어야 한다. 따라서, 老年學은 퇴직전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持論에 따라서, 넓은 의미의 老年學과 좁은 의미의 老年學을 圖式化시켜 보면, 〈表 7〉과 같다.

〈表 7〉 老年學의 老齡上 範圍



〈表 7〉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넓은 의미의 老年學에서 年齡上의 범위를 50歲로 想定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停年年齡으로 55歲가 많기 때문이다. 적어도 55歲에 퇴직하는 퇴직자(retiree)들은 5年前에 퇴직준비를 하여야 하며, 아울러, 그들을 위한 퇴직전의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44]

44) 韓昌榮, 「美國老年學」, 제주 : 新亞文化社, 1990, pp. 96~107; 退職準備프로그램(Retirement Preparation Programs),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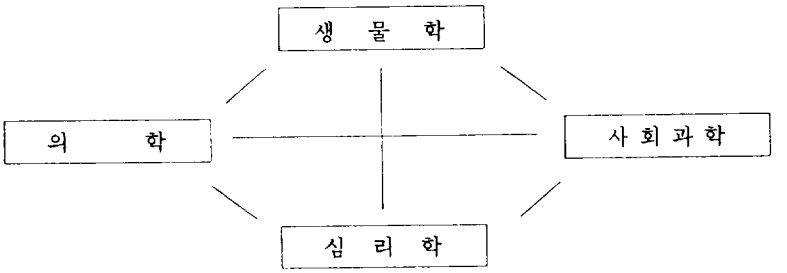
2. 老年學의 構造

老年學의 構造를 理解하는데는, 먼저, 老年學은 老年醫學(geriatrics)과 社會的 老年學(social gerontology)으로 兩大別되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認識을 前提로 하면서, 다음에 老年學의 構造와 關聯되는 見解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老人福祉便覽」의 見解

「老人福祉便覽」에서는 老年學의 영역을 다음 〈표 8〉과 같이 圖式化시키고 있다.[45]

〈표 8〉 노년학의 영역



〈表 8〉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노년학의 대상이나 범위는 광대하지만, 이를 크게 나누면, 〈表 8〉과 같이 4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表 8〉에서 사용되어진 "→"標는 상호간에 關聯性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表 8〉은 四分法을 活用하고 있는게 特色이라 할 수 있으며 4개 분야의 相互關係를 잘 설명하는 構造라고 할 수 있다.

나. 金相圭의 見解

金相圭교수는 老年學의 발달과정을 중시하여, 다음과 같은 老年學의 구조를 圖式化시키고 있다.[46] (〈表 9〉, 참조).

〈표 9〉 노년학의 구조

Geriatrics (老年醫學) ——— Gerontology (老年學) ——— 老年心理學, 老年社會學, 老年醫學, 老年福祉學 〉 으로 分化

45) 鄭周永, 「老人福祉便覽」, 서울 : 峨山社會福祉事業財團, 1985, p. 119.
46) 金相圭, 前揭論文, p. 56.

〈表 9〉에 의하면, 老年醫學이 먼저 발달하였으며, 그 발달과정에서 老年學이 발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老年學이 발달하여감에 따라서 그것이 細分化되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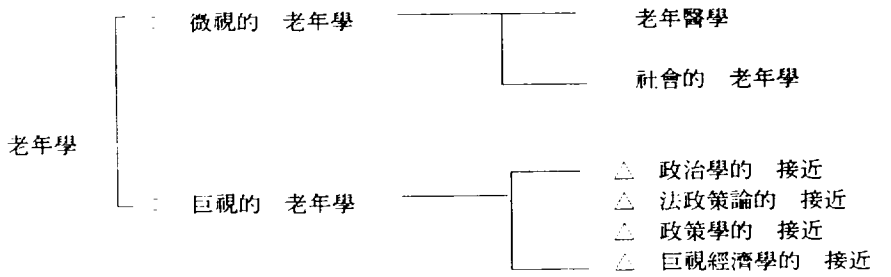
요컨대, 金相圭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老年學(〈表 8〉의 것)은 좁은 의미에 있어서의 老年學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老年學안에 老年醫學과 社會的 老年學이 包含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老年學의 構造라는 視角에서, 여러 學者들의 見解를 살펴봤거니와, 다음에는, 필자가 생각하는 老年學의 構造를 試案的으로 提示하고자 한다. 그 試案들은 學的 內容上으로 본 構造, 諸次元上으로 본 構造 그리고 時·空上으로 본 構造인바, 다음에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다. 學的 內容上으로 본 構造

學的 內容上으로 본 老年學의 構造를 云論하는데, 먼저 老年學에 대한 批判과 反省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老年學의 內容이 너무나 微視的인 接近(microscopic apprach)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47] 따라서 앞으로의 老年學은 巨視的인 接近(macroscopic approach)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미국의 老年學界에서도 巨視的인 接近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48] 따라서 필자는 위와 같은 점에 着眼하여, 經濟學(economics)에서도 微視的 經濟學과 巨視的 經濟學이 있는 것처럼, 老年學에도 그러한 微視的 接近方法과 巨視的 接近方法을 導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表 10〉는 이러한 관점에서, 學的 內容上으로 본 老年學의 構造를 試圖해 본 것이다.

〈표 10〉 學的 內容上으로 본 構造



47) 森幹郎, 「政策老年學」, 東京 : 垣內出版, 1981, p. 6.

48) William W. Lammers, 「Public Policy and the Aging」, Washington, D. C. : CQ Press, 1983 ; Bennett M. Rich and Martha Baum, 「The Aging-A Guide To Public Policy」, Pittsburgh :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8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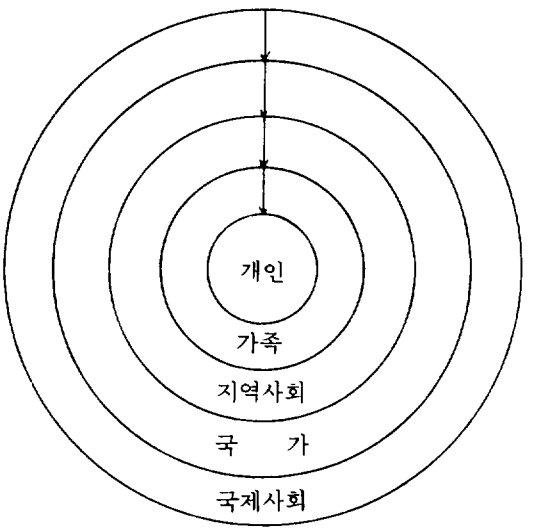
〈表 10〉은 巨視的 老年學에 力點을 두어서 작성되어진 圖式이거니와, 微視的 老年學에 속하는 老年醫學이나 社會的 老年學에도 여러가지 接近方法이 있다. 먼저 老年醫學을 살펴보면, 醫學的 接近方法을 비롯해서 生物學的 接近方法 또는 醫療行政的 接近方法 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社會的 老年學 分野에도 여러가지 接近方法이 있으며 때로는 이 分野에 해당하는 接近方法이 巨視的 接近方法으로 간주되어질 것도 排除할 수 없을 것으로 안다.

끝으로, 巨視的 老年學에서 列擧되어진 接近方法은 例示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튼, 이 分野에서 老年學이 발달되어야 한다. 이것이 韓國老年學發達의 課題하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諸次元上으로 본 構造

우리나라에서도 老人問題를 諸次元(예, 個人的 次元, 社會的 次元 등)으로 다뤄보고자 하는 硏究가 있어왔다.[49] 필자 역시 老人問題에 관심을 갖기 시작(1969년)하면서, 老人問題를 諸次元으로 봐야 한다는 持論을 구상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表 11〉과 같다.

〈표 11〉 老人을 보는 諸次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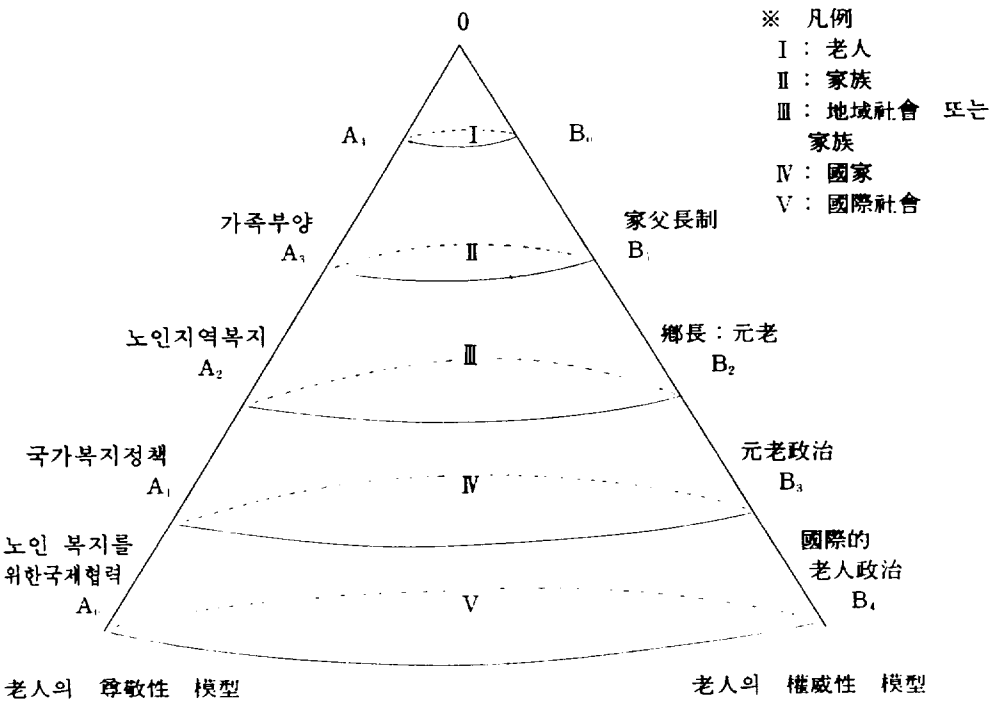


〈表 11〉에서 보여주는 "개인"은 老人이랄 수 있으며 그 老人을 여러가지 次元이 감싸주고 있는 것이다. 〈表 11〉에서 나타나고 있는 "→"標는 개인 즉 노인을 위하여 諸次元이 관심

49) 金弘植, "老人福祉의 社會的 次元에 관한 國際比較硏究", 「論文集」, 제12輯, 明知實業專門大學, 1988, 참조.

을 갖어야 한다는 方向指標이다. 필자는 〈表 11〉과 같은 틀(frame)을 갖고서 노인문제를 천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表 11〉의 諸次元을 立體的으로 構成해 볼 수 있는바, 그 立體圖는 〈表 12〉와 같다.

〈표 12〉 老人을 보는 諸次元의 立體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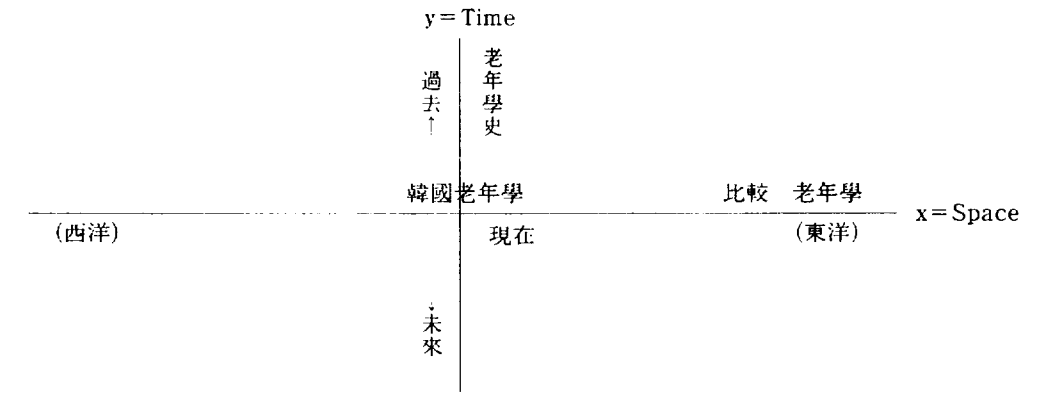


〈表 12〉에서는 老人의 尊敬性模型과 老人의 權威性模型을 兩軸으로 하여 고찰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老人의 尊敬性模型은 A_n로부터 A_1로 上向하는 모형이라고 한다면, 老人의 權威性模型은 B_n로부터 B_1로 下向하는 모형이랄 수 있다. 權威性模型은 元老支配(gerontocracy)에 妥當한 모형인 것이다. 그러나 民主政治에서는 老人의 尊敬性模型이 타당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마. 時·空上으로 본 構造

時·空上으로 본 老年學의 構造를 고찰하는 데는 이른바 xy의 座標를 援容하는 것이 편리하다. y軸을 時間으로 삼고 x軸을 空間으로 삼으면, 老年學의 座標는 〈表 13〉과 같이 圖式化시켜 볼 수 있다.

〈표 13〉 老年學의 座標



〈表 13〉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x軸과 y軸이 만나는 0點에, 현재의 韓國老年學의 모습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0點으로부터 y軸의 上部는 過去에 해당되어, 그 분야의 學問領域은 老年學史가 될터이고, y軸의 下部는 未來에 해당되어, 老年學的 未來學의 영역이 될터이다. 그리고 0點으로부터 x軸으로 進運하면, 外國과의 比較領域이 전개되어, 比較老年學의 대상이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0點으로부터 x軸으로 향하는 방향에 따라 左側으로 향하는 방향이 있는데, 이 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東洋과 西洋으로 편의상 나누어 볼 수도 있다. 즉, 0點으로부터 右側으로 향하는 영역을 東洋이라고 한다면, 0點으로부터 左側으로 향하는 領域을 西洋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Ⅳ. 韓國老年學의 位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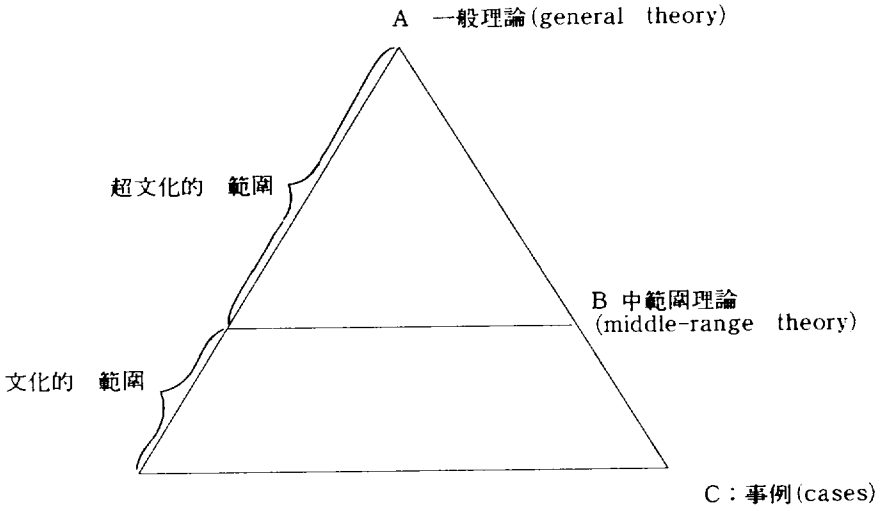
韓國老年學의 位相을 천착하는데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理論의 適用範圍上, 韓國老年學의 位相問題, 韓國老年學의 發達段階問題, 그리고 韓國老年學과 書誌學的 聯關性의 문제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을 차례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1. 理論의 適用範圍上의 位相

일반적으로 理論의 適用範圍를 云論할 때에는, 세가지로 나누어서 고찰되어지고 있다. 즉, 첫째로는, 事例(cases)研究가 있으며 이 事例에는 case by case로 적용되어지는 理論이 前提된다. 둘째로, 이른바 中範圍理論(middle-range theory)이 있는데, 이 理論은 一般理論(general theory)와 事例(cases)의 中間에 位置하는 理論인 것이다. 그리고 中範圍理論과 一般理論을 區劃하는 遵據基準은 그것이 文化的 範圍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超文化的 範圍에 속해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文化的 範圍에서 적용되어지는 理論이 中範圍理論인 것이다.

셋째로 一般理論은 超文化的 範圍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一般理論에 속하는 科學으로서는 數學이 있으며 自然科學들도 이 理論에 속하는 것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理論의 適用範圍를 圖式化하여보면, 〈表 14〉와 같다.

〈표 14〉 理論의 適用範圍



〈表 14〉에서 보여주는, 理論의 適用範圍에 老年學을 投影照準시켜 볼 때, 老年醫學은 一般理論에 해당하는 分野가 많을 것이나, 그러나 社會的 老年學은 中範圍理論에 해당하는 분야가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社會的 老年學에서 다뤄지는 分野는, 해당 국가의 文化(culture)의 영향을 받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韓國老年學은 韓國文化의 基盤(Boden)을 간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이른바 韓國的(또는 韓國型) 老人福祉模型의 存在理由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視角에서 主唱되는 理論이 다름아닌, 이른바 土着化 理論(contingency theory) 또는 狀況的 接近方法(situational approach)이라 한다.[50]

요컨대, 老人福祉에 관하여, 외국에서 啓發되어진 理論이라 하드라도, 그 理論이 반드시 우리나라에 잘 적용되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그런 理論도 우리나라의 文化나 風土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理論인 것이다. 따라서 韓國文化나 風土에 적합한 韓國的 老人福祉模型(또는 理論)을 개발하는 것이, 韓國老年學의 課題랄 수 있는 것이고, 이와같은 과제를 攻究하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51] 그러나 아직은 이런 노력이 初步的인 단계라고 評價할 수 있으며, 앞으로 韓國的 老人福祉理論의 巨步的인 발달이 기대되어진다.

50) 朴東緖, 「韓國行政論」, 서울 : 法文社, 1984, pp. 81~83.

51) 金宗鉉, "韓國的 老人福祉模型에 대한 試論(Ⅱ)", 「立法調査月報」 通卷 第166號, 國會事務處, 1988년 1. 2월호, 참조.

2. 韓國老年學의 發達段階

무릇, 事物의 발달단계를, 胎動期, 成長期, 發展期, 그리고 成熟期로 보는 見解가 있다. 여기서는, 이런 見解에 따라서 韓國老年學의 발달단계를 投影照準시켜 보고자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具滋順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1973年에야 최초의 博士學位論文(老年學에 관한)이 발표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1978年에 韓國老年學會가 創立되었으며, 1981年에는 老人福祉法의 歷史的인 制定이 이뤄졌던 것이다. 이어서, 同法은 1989年에 大幅的인 改正이 이뤄졌던 것이다. 그리고 〈表 6〉 한국사회노년학 연구논문현황(1960~1988)에 따르면, 1970年으로부터 1987年間에 발표되어진 論文數는 454편이었다. 이런 點으로 미루어 봐서 韓國老年學上, 80年代는 成長期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80年代가 成長期라면, 그 以前의 年代인 70年代는 자연, 胎動期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연이어, 成長期 다음에는 發展期가 오게 마련이다. 그래서 韓國老年學上, 90年代는 發展期로 보고 싶은 것이며, 흐르는 물에도 굽이가 있드시, 發展期를 지나서 2000年代라는 굽이에는 成熟期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論旨는, 우리나라의 老人人口의 增加趨勢와도 그 軌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2000年이 되면, 우리나라 65歲以上 老人人口는 2,972,000명(對全國人口構成比 6.3%)이 된다고 한다.[52] 또한 2000年 이후에, 老人人口가 急增하리라는 예측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對應하는 老年學은 不可避하게 발달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으로 운행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부연한, 韓國老年學의 發展段階를 圖式化시켜 보면, 〈表 15〉와 같다.

〈표 15〉 韓國老年學의 發展段階

	1970	胎動期
△韓國老年學學會 創立←	1978	
	1980	
△老人福祉法 制定←	1981	成長期
△老人福祉法 改正←	1989	
	1990	發展期
	2000	成熟期

52) 尹鍾周, "우리나라 老年人口의 成長推移 및 展望", 「韓國老年學」 No. 8, 老年學會, 1988, p. 8.

부연하여 두거니와, 胎動期에, 韓國老年學을 발전시키는데 참여한 사람들에 관하여, 朴在侃소장(한국노인문제연구소)의 見解와 金相圭교수의 見解가 있는데, 차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朴在侃소장의 見解[53]

〈韓國老年學會〉의 주요 任員으로서 직접 老人問題 研究에 參與하시는 분들의 名單(無順)

朴 寬 洙 (社團法人 大韓老人會長)
高 永 復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教授)
元 興 均 (社會法人 大韓三樂會長)
許 程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長)
孟 股 在 (韓國老後生活研究協會長)
李 允 淑 (同德女子大學 學生處長)
南 世 鎭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教授)
李 璋 鉉 (梨花女子大學校 教授)
金 璟 姬 (延世大學校 教授)
韓 昌 榮 (濟州大學 副教授)
金 泳 謨 (中央大學校 教授)
李 槿 洙 (梨花女子大學校 教授)
金 仁 達 (서울大學校 醫科大學 教授)
趙 成 慶 (崇田大學校 教授)
金 光 珠 (慶熙大學校 教授)
金 濟 泰 (서울平生教育院長)
崔 信 德 (梨花女子大學校 社會學科 教授)
金 相 圭 (韓國社會事業大學 副教授)
玄 斗 日 (建國大學校 圖書館長)
張 仁 協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教授)
徐 廷 德 (韓國社會事業大學 大學院長)
徐 鳳 延 (서울大學校 教授)
金 泰 蓮 (梨花女子大學校 教授)
權 五 得 (韓國社會福祉協議會 事務總長)
尹 鍾 周 (서울女子大學 教授)
朴 在 侃 (韓國老人問題研究所長)

53) 朴在侃, 「老人問題와 對策」, 서울 : 二友出版社, 1979, 머리말 뒷면, 참조.

△ **金相圭교수의 見解**[54]

우리나라 사람으로써 現在 이 分野에 關係를 갖고 있는 人物들을 추려보면 먼저 學究(間)的 分野에는,

① 金相圭(日本關西學院大學에서 博士學位取得, 韓社大學附設老人福祉研究所長, 教授)

② 李允淑(日本東京大學에서 博士學位取得 同德女子大學附設老人保健福祉研究所長, 教授)

③ 玄斗日(建國大學 教授)

④ 河相洛(前서울大學 教授, 現韓國老年學會副會長)

⑤ 徐鳳延(서울大學 教授, 女流心理學者)

⑥ 韓昌榮(濟州大學 教授)

⑦ 許 程(서울大學 保健大學院長, 現韓國老年學會長)

⑧ 朴泰龍(韓社大學附設老人福祉研究所幹事, 教授)

그리고 實務分野의 人物로는

① 朴寬洙(大韓老人會會長, 韓國老年學會初代會長 死亡)

② 朴在侃(大韓老人問題研究所長, 韓國老年學會 副會長)

③ 河斗澈(仁旺老人學校長)

④ 元興均(大韓工樂會長)

같은 人物들을 들 수 있겠다. 그리고 이 外에도 우리 나라에는 402個 老人學校(1980年 7月 3日 現在)가 있는데 이들 學校에는 이 分野에 特別한 關心을 가지고 研究·努力하고 있는 많은 人物들이 있음을 아울러 付言하는 바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胎動期에는, 極小數의 人士들이 참여했었는데, 「韓國老年學」 No. 9 (1989)에 의하면, 韓國老年學會 加入會員中, 단체회원이 14개단체, 개인회원이 306명이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會員數만 봐도, 韓國老年學이 90年代에는 發展期가 될 것이라는 期待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3. 韓國老年學과 書誌學

무릇, 學問의 발전에는, 書誌學을 看過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書誌學의 발달없이는 學問의 발달을 期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韓國老年學上, 書誌作業이 어느 정도 발달하였는가라는 질문에 아마도 肯定的으로 解答할 수는 없는 實情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韓國老年學上, 書誌作業을 소급해서 살펴보면, 1982년 5월 11일, 大韓老人會와 韓國老年學會가 主催하고 文教部가 後援하여 개최되었던 第4

54) 金相圭, 前揭論文, p. 63.

回 老人問題·學術세미나(主題 : 現代社會와 老人問題)에 관한 "報告書"에 "國內에서 發表된 老人關係 論文目錄"이 收錄되어 있다(同報告書, pp. 92~97). 이 老人關係論文目錄은 老年學의 書誌學上, 높히 평가되어야 할 作業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老人關係論文을 처음으로 書誌作業을 하였던 것이다. 이 論文目錄의 構成은 三部로 되어 있거니와, 여기서는 博士學位論文에 관한 部分과 碩士學位論文에 관한 部分만 소개하고 "學術誌 등 發表 論文"게 관한 部分은 省略하기로 하는 바, 그 論文目錄은 다음과 같다.

國內에서 發表된 老人關係 論文目錄

〈博士學位論文·發表年度順位〉

玄斗日 韓國에 있어서의 老人扶養에 관한 硏究, 建國大學校 大學院, 1975.

崔信德 社會變還과 韓國家族, 梨花大學校 大學院, 1975.

韓昌榮 韓國老人福祉의 行政과 法制에 關한 硏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1979.

김진호 한국사회복지정책목표와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0.

金兌玄 韓國에 있어서의 老人扶養에 관한 硏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1982.

金桂三 韓國의 老人福祉制度에 관한 硏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1982.

〈碩士學位論文·無順〉

金勇煜 老人福祉事業의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68.

卞鍾和 老人들의 眼耳 및 치아위생에 對한 조사, 서울大 보건대학원, 1967.

林鍾權 농촌老人들에 對한 사회의학적 조사. 서울大 보건대학원, 1967.

鄭榮翰 老人 腦의 조직 병리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71.

鄭再建 한국의 도시화와 가족구성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1972.

許敏求 近代가족에 있어서 老人의 役割과 保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1972.

高筍心 中國 대가족제도 연구 — 族產제도를 中心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73.

李文子 우리나라 노인복지에 대한 소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73.

李京植 孝의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62.

趙福姬 祖母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성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1973.

禹在杰 우리나라 양노원에 대한 보건학적 조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73.

金龍花 老人들의 여가活動에 關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1975.

高貞子 한국가정의 姑婦關係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1975.

李琦淑 한국가정에 있어 고부간의 갈등에 관한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1975.

李琦淑 한국가정에 있어 고부간의 갈등에 관한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1975.

李年雨 한국사회의 핵가족화 경향과 그 문제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75.

安鴻子 老人生活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그들의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76.

최경옥 노인간호에 대한 간호원의 태도 조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1976.

韓德順 老人들이 基本要求에 關한 調査,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76.

羅重植 복지행정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 정책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77.

한창영 노인문제에 關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77.

玉先花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의식의 전통성과 近代性에 關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74.

金幸子 서울市內 一部 노인들의 소외정도에 關한 조사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1974.

郭敬淑 우리나라 가정에서 본 노인생활의 실태조사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1978.

黃聖媛 한국노인의 생활 實態 및 가치관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1977.

金貴粉 老人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 조사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1977.

金惠鍾 노인의 건강요구에 관한 조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1978.

朴泰煥 노인수용보호시설에 關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1978.

劉良淑 在家老人의 생활실태와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연구, —서울시내 노인학교 및 노인정 이용자를 中心으로—, 이화女大 대학원, 1978.

박미령 家族內 老人의 역할과 소외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79.

이연숙 노인문제에 關한 연구 —노인복지 주택에 對한 태도를 中心으로— 연세대 대학원, 1979.

金京淑 노령인구의 인구학적 분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79.

김도훈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모색,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1.

김수영 시설노인의 생활실태와 복지혜택 —부산지방 양노시설을 中心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1981.

李炳珪 도시노인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1.

이재형 노인 자신위 태도 및 지각의 측면에서 본 노인문제 분석,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1981.

全昺錫 고령자 인력활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81.

崔銀英 노년기 생활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1981.

김경숙 도시인의 노후 생활에 대한 가치관과 대책에 관한 연구, 숙명女大 대학원, 1981.

金泰玉 노년층과 젊은층의 스트레스 지각에 관한 비교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1981.

河順玉 노인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이화女大 대학원, 1979.

김양재 노인성 피부질환의 임상적 관찰, 중앙대학교 대학원, 1980.

이천희 도시 고령자의 여가 활동에 관한 일 연구— 서울시 남녀노인의 Leisure Sports의식을 中心으로— 고려대 대학원, 1980.

朴泰龍 한국노인복지사업에 관한 연구— 변화 과정과 현황, 한국사회사업대학 대학원, 1976.

고성룡 노인을 위한 장기간호시설의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

고계철 대도시 주거단지內 노인주거 환경계획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고 대학원, 1979.

조분이 노인학교의 운영에 관한 역구, 이화여대 대학원, 1981.

이남표 한국노년의 심리,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이순자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문제점과 그 대책, 중대 사회개발대학원, 1968.

손인숙 농촌지역 가정의 노인실태 및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1979.

정용도 한국의 도시화와 가족구성에 관한 고찰, 서울대 대학원, 1972.

이옥재 한국도시노인에 관한 일 연구,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비교 中心— 이대 교육대학원, 1979.

허병이 양노시설의 건축공간형성에 영향을 주는 제요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1980.

나성숙 시설노인의 사회간호학적 실태조사 연구, 경희대 대학원, 1979.

김해운 현대사회변화와 노인문제에 관한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1977.

〈學術誌 등 發表論文〉 (無順)

※ 省略

위에서 소개되어진, "國內에서 발표된 老人關係 論文目錄"이 발표된 이후, 韓國老年學界에서는, 本格的인 書誌作業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다만, 韓國老年學의 書誌目錄作業과 관련이 있는 자료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社會福祉文獻目錄」(1987)**[55]

이 「社會福祉文獻目錄」안에, "老人福祉"라는 部分(同目錄, pp. 129~145)에서,

- 單行本
- 一般論文
- 學位論文

55) 鄭周永, 「社會福祉文獻目錄」, 서울 : 峨山社會福祉事業財團, 1987, 참조.

등이 소개되어 있으나,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收錄되지 아니한 자료들이 많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하기야 이 「社會福祉文獻目錄」은 老年學目錄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기 까닭에, 충실한 老年學目錄을 期待한다는 것이 무리한 주문일 것이다.

△ 「社會 · 勞動關係文獻目錄」(1989)[56]

이 「社會 · 勞動關係文獻目錄」에서는 "社會福祉"라는 부분(同目錄, pp. 88~132)에서, 주로 老人關係文獻目錄이 散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目錄集의 자료배열은, 1~10順과 가 · 나 · 다順으로 되어 있는 것이 特色이랄 수 있는 것이다. 이 目錄集 亦是, 老年學目錄만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기 까닭에,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收錄되어 있지 아니한 자료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위에 소개한 目錄作業 이외에도, 국회도서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기간행물기사색인」중, 〈社會福祉〉분야에서 老年學에 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으나, 이 目錄集에서도 老年學에 관한 자료는 散在性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따라서 韓國老年學의 발전을 위해서는, 韓國女性學을 뒷받침하고 있는, 「韓國女性關係文獻總目錄」(1945~1973)[57]과 같은 書誌作業이 先行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는 법이 없을 것이다. 아울러 1980年에 創刊되어진, 「韓國老年學」誌도 1989年에 「韓國老年學」No. 9가 간행되었고, 곧 「韓國老年學」 No. 10이 간행될 예정이다. 이 「韓國老年學」 No. 10에는 창간호로부터 同誌 No. 9까지의 總目錄이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老人生活」誌도 1990년 9, 10월호로서 「老人生活」 통권 78호가 간행되었거니와, 「老人生活」 통권 80호 정도에는, 同誌 창간호로부터 同誌 79호까지의 總目錄을 정리하는 書誌作業이 이뤄진다면, 그런 작업은 韓國老年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어갈 것이다.

요컨대, 美國의 老年學이 눈부시게 발달한 背景에도, 그에 관련된 書誌學이 體系的으로 발전되어 있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의 老年學界에서는 "Journal of Gerontology"에 老人關係文獻目錄이 계속해서 소개되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註釋附 書誌作業(annotated bibliography)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이다.[58] 이 주석부 서지작업은, 관계문헌(책 또는 논문)을 간추려 그 내용을 소개하는 작업인 것이다. 우리나라 老年學界에서도 주석부 서지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이 先行되어질 때, 韓國老年學은 加速的으로 발전하게 되어갈 것이다.

---

56) 愼東宰, 「社會 · 勞動關係文獻目錄」, 서울 : 敎保文庫, 1989, 참조.

57) 國會圖書館, 「韓國女性關係文獻總目錄」(1945-1973), 서울 : 國會圖書館, 1974, 참조.

58) 미국 노년학계의 註釋附 書誌作業(annotated bibliography)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M. Leigh Rooke, and C. Ray Wingrove, Gerontology : An Annotated Bibliography, Washington, D. C. :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77.

△ Lucy DeLuca, Aging : An Annotated Guide to Government Publications, Connecticut : University of Connecticut Library, 1975.

△ Ruth Grant, Aging Awareness : An Annotated Bibliography, Pittsburgh : Senior Citizen School Volunteer Program, Western Pennsylvania Gerontology Center, Unitersity of Pittsburgh, 1979, 등.

Ⅳ. 結　　語

위에서, 老年學의 擡頭와 발달, 老年學의 內容과 構造, 그리고 韓國老年學의 位相을 고찰하여 봤거니와, 結語에 즈음하여, 먼저 韓國老年學發展을 위한 提言을 表明하고 연이어 結語를 맺고자 한다. 먼저 韓國老年學發展을 위한 提言을 個條式으로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書誌作業이 活性化되어야 한다.

書誌작업을 活性化시키는 代案으로서는, 「韓國老年學」誌나 「老人生活」誌에 老人關係文獻紹介欄이 設定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바와 같이, 「韓國女性關係文獻總目錄」과 같은 假稱, 「韓國老人關係文獻總目錄」이 出刊되어야 한다.

△ 假稱. 「韓國老年學史」의 定立이 필요하다.

〈表 13〉 老年學의 座標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縱斷的 接近方法(vertical approach) 또는 歷史的 接近方法(historical approach)의 視角에서, 韓國老年學史를 想定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분야에 관한 硏究論文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자 그대로 體系的인 韓國老年學史는 期待上의 일이다. 1989년에 河相洛編, 「韓國社會福祉史論」이 出刊되었거니와, 同書內에 韓國老年學史에 관한 것은 散在的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이다.[59] 따라서 韓國老年學史의 定立이 있어야 할 것이다. 韓國老年學史의 定立은 이른바 韓國型 老人福祉理論(또는 模型)을 創案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므로, 韓國老年學史의 定立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 韓國老人關係文獻이 體系的으로 收合되고 정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代案으로서는, 먼저, 「韓國老年學會」의 事務室(空間問題)이 자주 移轉되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의 실정으로는, 同學會의 會長이 누구냐에 따라서 同會長이 소속되어 있는 職場으로, 同學會의 사무소가 옮겨 다니고 있는 것이다. 굴러다니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 법이다. 따라서, 韓國老年學會의 사무소는 일정한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韓國老年學會 傘下에 專門圖書館이 필요하다. 이 전문도서관에서 韓國老人關係文獻을 體系的이고 綜合的으로 수집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요컨대, 老人福祉에 관심을 갖고 있는 財團에서, 만약에 韓國老年學會의 사무소 건물 및 부속 전문도서관을 세우는데 投資를 한다면, 그 投資는 다른 어떤 형태의 투자보다도 값진 투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투자는 永久性이 있고 老人問題가 深刻化되어가면 갈수록 그 투자는 빛나게 되어 갈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

59) 河相洛編, 「韓國社會福祉史論」, 서울 : 博英社, 1989, 참조.

△ 假稱, 「韓國老年學事典」이 만들어져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85년, 峨山社會福祉事業財團에 의하여 「老人福祉便覽」이 발행되어, 老人問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거니와, 앞으로 韓國老年學의 발달을 위해서는, 假稱, 「韓國老年學事典」이 발간되어야 한다. 日本에서는 老人問題에 관하여 여러가지 事典類가 여러권 간행되어 있거니와, 最近(1989년)에 「老年學事典」이 발간되어 있는 것이다.[60] 또한 미국에서도 1976년에 "The Handbooks of Aging"을 발간하였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三卷으로 구성되어 있다.

- Handbook of the Biology of Aging
-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ging
-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요컨대, 우리나라에서도 여러가지 學問分野에서 事典類가 많이 쏟아져 나왔으나, 아직 老年學에 관한 事典類가 없기 까닭에, 가칭, 「韓國老年學事典」이 간행되어지기 바란다.

△ 比較老年學의 발달이 기대된다.

〈表 13〉 老年學의 座標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比較老年學分野의 발달이 있어야 한다. 韓昌榮 著, 「美國老年學」은 이러한 比較老年學의 발달에 다소라도 기여하고자 하여 발간되어진 것이다. 比較老年學을 발전시키는 일환책으로, 외국의 老年學研究機關과의 結緣事業도 전개되어야 한다. 예컨대, 미국의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안에 있는 The Ethel Percy Andrus Gerontology Center와 같은 기관과의 결연사업을 손꼽을 수 있을 것이다.[61]

△ 老年學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研究費 또는 장학금지급이 기대된다.

老年學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연구비가 지급되어지고 장학금이 지급되어지는 체제(system)가 確立되어가면, 자연스럽게 有能한 연구자들이 老年學研究에 참여하여 갈 것이다. 老年學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연구비를 지급하는 代案으로서, 大學 또는 大學校안에 老年學研究所設立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老年學研究所設立은 多多益善이랄 수 있다.

---

60) 那須宗一 監修, 前揭書, 참조.
61) 韓昌榮, 「留美漫筆」, 제주 : 新亞文化社, 1990, p. 91.

위에서, 韓國老年學發展을 위한 약간의 提言을 表明하여 봤거니와,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老年國처럼, 나이갈수록 老人問題가 深刻化되어지고 있음을 想到할 때, 韓國老年學의 발달은 時代的인 要請이며 이제 火急之事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言及되어진 여러가지 提言들은, 따지고보면, 韓國老年學의 발달을 위해서 必要不可缺한 것이며 基本的인 것이고 時代的으로 要請되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前述되어진 提言들이 반드시 具體化되어지길 바란다. 前述한 提言들이 具體化(implementation)되면, 韓國老年學은 제대로 발전되어질 것이고, 韓國老年學의 발달은 老人福祉增進에 기여하게 되어갈 것이다.

※ 위 論文을 脫稿後, 필자는 1991년 1월 25일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년학문헌목록」(1990)을 奉受하였다. 이 「노년학문헌목록」은 韓國老年學의 발전에 金字塔의 役割을 하게 되어 갈 것이다.